

근대교육 발상지에 세워진 서울교육박물관



황동진

서울교육박물관
학예실장

어려운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꾼 박물관

서울교육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이를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한 교육전문박물관이다. 처음 문을 연 1995년에는 유물 수집과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박물관 교육 및 새로운 전시 문화를 선보이며 북촌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고종황제가 설립한 관립중학교
(현 서울교육박물관 자리 1904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현 서울교육박물관 1928년)



서울교육박물관 전경

서울교육박물관이 위치한 북촌은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선비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며, 대한제국 시기에는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발상지가 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고, 그 뜻에 따라 현재 서울교육박물관이 위치한 이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관립중학교(현 경기고)를 설립한 것이다. 대학설립을 준비하던 우리 민족이 더 이상 고등교육을 받는 걸 원치 않던 일본은 학교의 이름을 여러 번 바꾼다. 이는 그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억제하고 그들이 원하는 도구로 학생을 양성하고자 한 목적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1906년에 관립한성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꿔 우리 민족의 신교육에 대한 열망을 막고 더 이상의 고등교육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권을 침탈하고 그다음 해인 1911년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로, 1921년에는 다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로, 1938년에는 경성공립중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이런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꺾이지 않아서,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나고 학교 대지도 점진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교실로 쓰일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장실, 교무실 그리고 행정실이 들어설 새로운 건물도 1928년에 준공하는데, 현재 서울교육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바로 이때 지어진 것이다. 이 건물은 외벽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로, 당시 학교의 명칭은 경성제일공립보통학교였다. 지금은 그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근대건축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서울교육박물관을 방문하면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학교 건축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교육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로 나뉘어 있다. 먼저 상설전시실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주제로,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특별전시실에서는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2024년 9월~2026년 6월) 등 주제를 바꿔가며 전시를 열고 있다.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는 나라

우리나라 전통 교육의 시작은 삼국시대부터인데 이중 고구려가 제일 먼저 태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귀족이나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그 후 고구려는 교육이야말로 국가를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시기에 일반 평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경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다. 경당에서는 활쏘기를 배우기도 했는데글뿐 아니라 활쏘기 같은 무예도 가르쳤는데, 이러한 교육체계가



삼국시대의 교육



조선시대 무과시험



조선시대 문과시험

고구려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한 힘이었을 것이다. 신라나 백제 역시 국학과 화랑 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일본에 오경박사를 파견해 그들을 교육했다는 사실은 이들 나라에서도 교육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삼국시대의 교육제도는 더욱 발전하고 체계화된다. 그 중심에는 958년(광종 9년) 중국의 제도를 도입한 과거제도가 있었다. 과거의 도입은 유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자연스럽게 학교 제도의 정비와 확산으로 이어졌다. 과거제도의 탄생은 고려의 설립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려는 호족의 도움을 받아 세운 나라이기에 건국 초기에는 왕권이 매우 약했다. 4대 왕으로 등극한 광종은 강력한 왕권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기존에 정치 세력들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왕의 통치 철학에 순응하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과거는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뽑기 때문에 기존의 음서제도를 통해 관리가 되었던 정치 세력을 견제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인재를 통해 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음서제도란 조상의 덕으로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로 5품 이상의 문무 관리나 공신, 왕족의 자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음서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문벌 계층이 관리가 되기에 유리했지만, 실력 기반의 과거제도가 도입된 후 음서 출신 중 절반 가까이가 과거시험을 치른 사실로 보아, 정치에 뜻이 두거나 고위 관리가 되려면 과거를 통하는 것이 더욱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제도가 정착되고 나라에서는 국자감을 설립하는데 국자감은 992년에 만든 학교로 오늘날의 종합대학과 같으며, 관리를 길러내고 유학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국자감은 국학에서 성균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공민왕 11년에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과거제도는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자리 잡는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사회 분위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 환경을 만들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 중심의 사회제도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선비정신을 발전시켜 조선시대를 유지하고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비정신은 조선시대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었다.

선비들은 크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먼저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르는 현실주의적 관료파로 관직을 통해 나라를 위해 일과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이상주의적 학구파로 주로 고향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끝없는 자기 성찰로 인품을 쌓으며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서원을 세워 제자를 가르치거나, 홀로 공부하고 글을 써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특히, 선비는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맨 앞에 나서서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이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도덕적 모범을 실천하는 지성인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선비정신이야말로 조선을 지탱하는 정신적 토대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교육제도의 중심에는 서당이 있었다. 서당은 전국 각지에 분포한 대표적인 사립교육기관으로 ‘글방’, ‘서재’ 등으로도 불리며, 조선의 교육을 떠받친 중요한 공간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학교를 ‘교화의 근본’이라 여겨 인재를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서당은 마을이나 가문 단위로 운영되었으며,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인사나 외부에서 초빙한 인물이 훈장 역할을 맡았고,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접장도 있었다. 교육 내용은 강독(글 읽기), 제술(글짓기), 습자(글씨 쓰기) 세 가지로, 주로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사서삼경 등을 중심으로 배웠다. 교육 방법은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질문하면 응답하는 방법, 외우고 낭독하는 방법, 그리고 책을 보고 읽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통 7~8세에 입학하여 15~16세쯤 교육과정을 마치고, 향교나 서원 등으로 진학했다.

향교는 국가가 설립한 공립 교육기관으로, 양인 이상 신분의 17세 이상 남성이 입학할 수 있었다. 향교에 다니는 유생과 생도를 교생이라 불렀고, 성균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숙하며 소학, 사서오경 같은 유학 경전을 배웠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과 학문을 병행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이름난 선비를 제사하고 그분의 열과 행실을 본받으며,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의 선비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사립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인재 양성과 백성 계몽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현판을 내리기도 하고, 책이나 노비 등을 지원하며 서원을 장려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서원이 많이 생겨났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시기에는 서원이 지역 의병 활동의 거점 역할도 했다.

성균관은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정원은 200명이었으며 졸업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총 300점을 취득하여 문과 초시의 자격을 따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평균 7년 반 정도 수학해야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되었다고 한다.



유경



서안



도산서원 모형



선비의 하루 모형

이토록 체계적이며 세밀한 전통 교육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교육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 전통 교육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물 중심의 특별전 운영

● 2023년 특별전: 임시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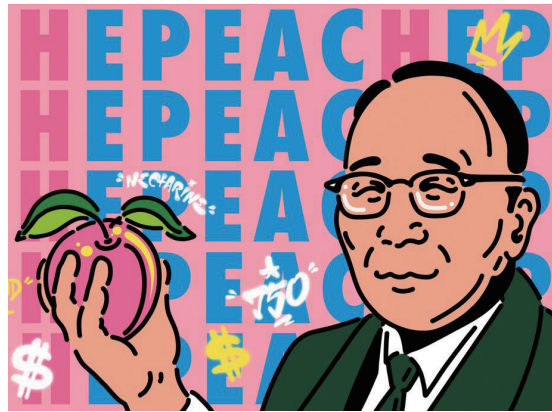
1884년 5월 25일 안국동에서 출생한 김호는 고종황제가 설립한 관립중학교(현 경기고) 제1회 입학생이 되어 4년간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후, 졸업과 동시에 관립중학교 교관으로 임명된다.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김호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교육활동가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1912년 상하이를 거쳐 1914년 미국으로 떠났다. 큰 꿈을 가지고 도착한 미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 탄광에서 열심히 일해도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벅찼다. 김호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립운동가 김호
(1884-1968)



특별전시실 전경



김호와 천도복숭아 대형 그래피티

1922년, 김호는 서울에서 인연을 맺은 김형순 부부와 함께 김형제상회(Kim Bros Company)*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김호와 김형순은 힘을 모아, 털이 없는 신품종 복숭아인 넥타린(천도복숭아)을 개발하였고, 이는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려, 과일은 물론 묘목까지 판매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엄청난 성공으로 김호와 김형순은 미국 내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로 성장한다. 김호와 김형순은 김형제상회로 이룬 막대한 재산을 한인사회 발전, 대한민국민회 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지원 등에 기부하면서 미국 내 한인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로 이름이 알려진다.

1937년 대한민국민회 초대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호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특별의연금, 중국 항일전쟁후원금, 국민부담금 등을 신설하고 모금을 통해 임시정부를 후원했다.

194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노한 미국인이 한인을 일본인과 혼동하여 한인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김호는 한인들의 신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한국인 신분증을 만들었고, 가슴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일전쟁의 승리를 염원한다.”라는 문구와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배지를 달고 다니도록 주도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계기로 김호는 미국 정부에 요청하여 한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국의 일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사가 1942년 8월 29일에 LA 시청에서 열리도록 주도했다. 이 행사에서는 LA 시청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으며, 12개국 언어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전달했다. 김호는 이 행사에 마셜 제독과 함께 주빈으로 참석해 미국 내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범 미주연합단체를 결성하고 활발히 활동했다.

1945년 광복이 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대변인으로 선임된 김호는 1945년 11월 4일 해방된 조국에 도착하여 미군정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 의원으로 선임, 적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족 반역자특별법 제정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47년에는 김규식과 신진당을 창당하고 좌우합작에 힘쓰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1948년 재미 한족 연합회의 활동을 기록한 <해방조선>을 발간하고, 한인재단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미국 내 한인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1959년에 <재미 한인 오십 년사>를 발간하고 1962년 한인센터 조직을 설립, 초대 위원장으로서 한인회관 건립에도 앞장섰다. 김호는 평생을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1968년 LA주택에서 84세로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199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2002년에 그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으로 봉환되어 사랑하는 조국의 품에 안겼다. 또한 2006년, 미국 LA 교육계는 김호의 독립운동과 사회공헌을 기리며 동양인 최초로 그의 이름을 딴 ‘Charles H. Kim Elementary School’(김호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서울교육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독립운동가의 활약을 쉽고 흥미

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록 장난감으로 구현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이제형 작가의 작품 16점과 대형 모형 5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로는 3.1 만세혁명과 유관순, 안중근, 세상을 향해 외치다, 홍범도와 봉오동 전투, 하늘을 날다, 권기옥 등이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글자 블록 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교육적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별전시실 입구



특별전시실 전경



관람 모습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물

서울교육박물관은 교육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주로 조선시대 서당과 서원에서 사용하던 책,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까지의 교과서를 포함한 13,540점의 교육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교과서 외에도 각종 학습서와 공책, 일기장 등의 기록물, 그리고 문구류, 교복, 가방 등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최근 전시는 관람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개화기 이후 근현대 교육사와 생활사 중



중학교 입학 무시험 추천기



소품 가방과 신발



추억의 책걸상

심의 유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1960~70년대의 교육자료와 생활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말에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실에서는 부모 세대가 직접 사용하고 배웠던 교육자료와 생활용품을 함께 관람하면서 자녀들에게 직접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세대 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육적 효과가 이루어지는 박물관이 바로 서울교육박물관이다.

모두의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는 박물관

앞으로 서울교육박물관은 어른들에게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부모님 세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배움의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은 긴 역사 속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이어져 온 선진적인 제도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교육 현장은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내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는 그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교육을 되찾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시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 문제점이나 자라나는 세대를 보며 교육이 문제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무책임한 비판을 쏟아내기보다는 과거 전통 교육의 우수성과 합리적인 제도를 성찰하고, 교육사를 통해 현재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교육박물관 관람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 소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교육박물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림책 작가, 역사 동화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우리는 학교에 가요」, 「문을 열어!」가 있으며 역사 동화는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 「태극기를 든 소녀 1, 2」 등이 있다.

사진 출처

원고에 실린 모든 사진은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이며 소장 유물 역시 서울교육박물관 소장 유물입니다.